

<서평>

##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Anthony C. Thiselton

Edinburgh: T&T Clark, 1995, 180p.

최승락\*

### 1. 개략적으로 보기

이 책은 영국 노팅햄 대학교 신학부 학장을 거쳐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앤토니 티슬턴 교수의 해석학 관련 세 번째 저작이다. 원래 신학이 다루어야 할 시대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라는 취지에서 개설된 에버딘 대학교의 “Th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Lectures”에 첫 번째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한 원고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진리와 자아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면에서는 텍스트의 세계 속으로 초청받는 독자가 그 세계와의 자유로운 만남과 그에 따른 자아의 변혁적 개방을 맛보게 되는 ‘해석학적 경험’의 범주 속에 진리의 의미를 위치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자아가 위치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권력적 욕망과 의미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다. 티슬턴 교수의 표현대로 하자면,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해석학적 탐구의 과제를 조작에 대항하여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 베티와 가다

---

\*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약학

며, 리피르가 있고 스펙트럼의 또다른 끝에는 그 역을 외치는 사람들, 곧, 로티, 테리다, 리오타르 등이 있다. 이들이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속임과 조작, 또는 최소한 ‘이익’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해석학과 수사학이 합리적 논증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p. 41).

이런 상황 가운데서 티슬턴 교수 자신은 비조작적 텍스트 해석과 관계적 진리(truth as relational)의 시각에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일단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자아가 처하여 있는 위치와 그 고민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트모던 자아는 더 이상 고립적, 초 상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회적 그물망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기본 조건으로 가진다. 그리고 이것이 요구하는 상대적인 것들과 사회적 강압들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주장한다. 이런 딜레마가 가지고 오는 긴장을 티슬턴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 면에서 나사렛 예수는 1세기의 유대인으로 사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역사를 초월하는 알파와 오메가로 계셨다. 이 양자의 결합 때문에 기독교 진리는 단순한 추상적 명제나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수 없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을, 권력적 이해가 있는 곳에 섬김을, 의심이 있는 곳에 신뢰를”(p. 43) 요구하는 역동적 진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원래의 네 차례의 강연을 반영한 듯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에서는 진리와 의미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진리 조작 또는 의미 조작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직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하는 니체의 정신이 극대화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조작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 2부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의 자아의 자아성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별히 텍스트 해석을 통해 해석자로서의 자아는 텍스트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이해를 넘어 타인의 타자성과 대면하고 이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아가 새롭게 규정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3부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돈 큐핏(Don Cupitt)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바다”(the sea of faith)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티슬턴 교수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들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는 큐핏의 내재화, 탈대상화 하는 신학적 작업이 과연 자아를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다.

제 4부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티슬턴 교수 자신이 한 제안으로, “약속의 신학” 또는 “약속의 해석학”을 논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관계적 진리와 관계적 자아를 뒷받침하는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믿음의 응답이다.

## 2. 보다 상세히 맛보기

우리가 이 짧은 글 속에서 이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충분히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몇몇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맛봄으로써 이 책의 진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먼저 티슬턴 교수는 성경 텍스트의 자아 해석 능력에 대해 강조한다. 모더니즘 시대의 경험주의적 해석 모델은 텍스트를 하나의 연구와 관찰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가들, 이를테면 폴랑 바르트 등은 저자의 죽음

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인식들 속에서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 텍스트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과 자아성 이해에 가지고 오는 변혁적 효과의 능력이다. 텍스트는 관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자아성에 말을 걸고, 때로는 대결하며, 도전을 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텍스트는 독자를 해석하기도 하며 독자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밝혀주기도 한다. 티슬턴 교수는 이것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성경이 가지는 변혁적 목적은 자아 해석학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해석자의 자아 정체성, 책임, 미래적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해석은 단지 이론의 언저리에 머물거나 호기심의 만족 정도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p. 66).

특별히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체를 티슬턴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거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찾고 있다. 우선 십자가의 신학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자아 이해에 대해 던지는 도전은 이해와 권력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는 이 시대의 관점이 결국은 자기 파멸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뿐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권력 의지에 의해 작동되는 전략적 관계는 결국 자신이 서야 할 발판조차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십자가의 모델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받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받는 자’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런 관계는 부수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며 창조적인 일이다.

신학적 의미에서 볼 때, 권력의 의지가 사랑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한다(p. 161).

이 바탕 위에서 티슬턴 교수는 ‘약속의 해석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의 현재적 사역의 결과로 자아의 재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새롭게 하는 일을 완성시키겠다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마침내는 모든 지평, 모든 이해 관계를 재형성시켜 놓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속은 자아 및 세상을 새롭게 빛는 변혁의 능력을 가진다. 티슬턴 교수는 이 면에서 그의 화행론(speech-act theory)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 언어와 약속 언어의 화수력(illocutionary force) 차이를 예리하게 잘 간파하고 있다.

진술적 명제의 논리는 현재 있는 것을 진술하는 일에 그 역할이 국한되지만, 약속의 논리는 세상을 바꾼다. 화자가 자신의 약속의 말에 충실히 머물고 또 그 약속을 수행할 힘을 가질 때, 그 약속의 말을 한 사람은 사태의 정황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상황이 이 약속의 말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다(pp. 162-163).

화행론의 관점을 잘 살린 그의 본문 해석은 방대한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sup>1)</sup>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 속에서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자아 해석에 작용하는지의 예를 티슬턴 교수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시해주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일상적 경험처럼 히브리서 속에서도 적대적인 권력 행사(12:3)를 ‘당하는 자의 편’에 서신 예수의 모습 속에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자체만이 돌과구 없는 전체 그림을 이룬다고 보지 않는다. 고난의 경험 속에서

---

1) 참고,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진정한 인간됨의 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버지의 ‘은혜’ 앞에 맡겨 자신의 자아성을 보여주는 더 큰 그림 속에 위치한다. 이 ‘은혜’는 ‘조종하는 줄이 달리지 않은’ 사랑을 가리킨다. 은혜 앞에서 조작의 종국을 고한다.

이 큰 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엮어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는 사상이다(히 6:13-18; 9:15-22). “이 약속이 우리의 자아로 하여금 가치감이 따르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한 목적 있는 의미를 찾게 한다.”(p. 163). 그리고 두 번째의 주제는, 이 약속에 살과 뼈를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 의지가 탈중심화되고(de-centred),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아 속에 ‘재중심화’(re-centred)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티슬턴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자기이익이 자아성을 손상시키기도 하며, 여전히 조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미래의 약속이 동터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빛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발견한다. 비록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되시며, 인간 자아는 항상 인간 자아로 머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인간 자아성의 해석이 보다 가까워짐을 보는 것이다(p. 163).

이것이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티슬턴 교수의 핵심을 잘 요약한다.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속으로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특성들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는 변함없는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 3. 종합적 평가

위에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논제는 선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흐름을 견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책이 강연에 바탕을 둔 이유 때문인지 좀 더 치밀하고 섬세한 구성이 아쉬운 점으로 떠오른다. 모던 및 포스트모던 해석의 중심 논점들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이 책 속에서만도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아쉽다. 이런 점은 저자의 또 다른 책들을<sup>2)</sup>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본다.

편집 상의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도 옥의 티이다. 예를 들면, 뉴펠트(Neufeld)라는 이름으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물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의 유형과 그 기능에 대한 좋은 글을 쓴 버논 뉴펠트(Vernon Neufeld)이고 또 다른 사람은 보다 근래에 요한서신에 대한 화행론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했던 디트머 뉴펠트(Dietmar Neufeld)이다. 이 두 사람이 색인에서 동일 인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책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사조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감당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에 대해 하나의 큰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자의 또 다른 책 *New Horizons in Hermeneutics*에서도 잘 지적하는 것처럼, 해석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두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가지는데, 하나는 이론에만 치우쳐서 너

---

2) Thiselton, *The Two Horizons: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Grand Rapids: Eerdmans, 1980; Grand Rapids: Zondervan, 1992).

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사조들에 대한 현실적 고찰은 없이 너무 사소한 가지 부분들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p. 557). 이 양자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 성경 본문 해석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천적, 목회적 차원의 변혁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석학적 원리들을 정립해갈 수 있는 작업이 요구되는 때에, 우리가 그 좋은 한 예를 티슬턴 교수의 저작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이 작은 책은 이런 전체적 작업을 이루어나는데 필요한 하나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